

광주-수원 한전 배구단 유치 경쟁 본격화

광주시, 유치 의향서 제출...광주여대 체육관 주경기장 제안 4월 연고지 계약 만료 수원도 재계약 의향서 내고 잔류 희망

광주시가 오는 4월 수원과의 연고지 계약이 만료되는 한국전력 남자 배구단 '빅스톰(VIXTORM)'을 끌어오기 위해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유치 작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기존 연고지인 수원도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어 두 도시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연고지 유치 의향서를 지난 20일 한국전력 배구단 사무국에 제출했다"며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올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관심이 높다

는 점을 의향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겨울 스포츠가 없는 광주시로 한전 배구단의 연고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을 배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쓸 것을 제안했고, 선수단 숙소 등은 이전이 결정된 후 구단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한국전력 본사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옮긴 2014년부터 배구단의 광주 이전에 힘써왔다. 당시 광주시는 한전 배구단이 유치될 경우 영주체육관을 주경

기장으로 활용하고, 선수단 숙소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전은 '지방에는 연습할 상대가 없고,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다른 팀들에 비해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016년 4월 기존 연고지인 수원과 3년간의 재계약을 했으며, 광주시와는 2019년 연고지 이전을 재논의하고자 약속했다.

수원시도 최근 재계약 의향서를 내고 한전 배구단의 잔류 희망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06년부터 10년 넘게 줄곧 한전 배구단의 연고지를 이어왔고, 체육관 개선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재계약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양 도시간의 유치전 속에 광주시

는 직접 발로 뛰며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광주시는 22일 투자유치협력관과 체육진흥과장, 광주시 배구협회 관계자 등을 서울로 급파해 한전 스포츠타운과 한국배구연맹(KOVO)을 찾아 광주의 배구단 연고지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의를 계획했다.

한편, 한국전력 측은 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건과 체육관 시설, 관중 동원 능력, 선수단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중 배구단의 연고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전 배구단이 광주로 이전할 경우 구단은 새로운 시즌 개막 3개월 전까지 연고지 변경 신청서를 한국배구연맹에 제출해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평균기온 상승 봄꽃 40년 전보다 6~9일 빨리 핀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홍릉 숲 생물 개화일 예측

평균기온 상승으로 봄꽃 피는 시기가 40년 전보다 6~9일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15년(2005~2019년) 동안 서울 홍릉 숲의 생강나무, 산수유, 히어리의 개화일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이 계속 이어지면 3월 하순에는 만개한 노란 꽃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생강나무, 산수유, 히어리는 서울지역 기준으로 3월 중-하순부터 4월 중순 노란 꽃을 피우는 우리 주변의 대표적인 봄꽃 세 수종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추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생물계절 조사팀이 홍릉 숲에서 관측한 생강나무, 산수유, 히어리의 최근 15년간 평균 개화일은

생강나무 3월 15일±4일, 산수유 3월 21일±7일, 히어리 3월 28일±6일로 관측됐다. 이는 40년 전인 1968~1975년과 비교할 때 생강나무와 히어리는 9일, 산수유는 6일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개화 이전 평균기온 증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개화 이전 평균기온과 개화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화 전 월평균 기온이 1도 증가함에 따라 생강나무 개화일은 평균 2일, 히어리 개화일은 평균 3일, 산수유 개화일은 평균 4일 정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 임종환 과장은 "빨라진 개화기로 인해 아름다운 봄꽃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생태적 측면에서는 식물의 생장과 번식은 물론, 곤충과 새의 생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생태계 변화 추정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봄꽃 개화 시기에 관해서도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협뉴스



수리 마친 익산 미륵사지 석탑 23일 공개

문화재청이 오는 23일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의 완전한 모습을 공개한다고 21일 전했다. 사진은 수리 전후 미륵사지 석탑 모습.



“광주·전남 숨은 관광지 찾아라”

관광공사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참여 지자체 모집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가 광주·전남의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관광공사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사업 공모에 참여할 기초지자체를 오는 4월2일까지 모집한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란 연간 10만 명 이하가 방문하는 관광지 가운데 체계적인 컨설팅과 집중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인기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유·무로 관광지를 의미한다.

광주·전남 신규 육성 관광지는 관광공사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뒤에는 관광지에 대한 후속 육성사업

을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한다.

관광공사는 1~2개 관광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관광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방향 자문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활동 ▲지역특화 상품개발 ▲업계 설명회·패투어·인근지역 교류프로그램 운영 등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문, 공모 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지역 예산배정(매칭) 증빙 등 관련 서류 각 1부를 관광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371-158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기술원 수산물 생산 4조시대 연다

현장중심 연구기능 활성화 하서 핵심전략품종 산업화 내달 추진

전남도해양수산기술원이 전남 수산물 생산 4조원 시대를 목표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현장 중심의 연구기능 활성화에 나선다. 해조류, 패류, 어류 등으로 나뉜 핵심 전략품종 산업화를 위해 오

는 2024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4월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전남도해양수산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책회의에서 해양수산이 전남의 미래 신동력 산업임을 강조하며, 연구 품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연구기능 강화를 주문한데 따른 후속계획을 수립했다.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기술원은 크게

4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3개 연구소 및 5개 품종별 시험장에 연구 인력을 집중 배치해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김, 톳, 능성어, 참조기, 해삼, 꼬막, 전복 등 핵심 전략품종을 선택해 집중적인 연구를 실시하며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남 수산물생산 4조원 달성을 목표로 오는 2022년까지 증기, 2024년까지 장기

계획을 수립해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2022년까지 3년간 5000억원의 소득 증가, 1500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했다. 해조류 분야에서는 해양별 김 신품종 보급(소득 1000억원 고용 300명), 톳 인공종자 생산 완전양식 기술개발(300억 100명), 어류에서는 능성어, 참조기 등 양식산업화(소득 1000억원 고용 300명), 해삼(트렉형 양식 등) 산업화(소득 1000억원 고용 300명), 패류에서는 꼬막(소득 1000억원 고용 300명), 전복 육종(소득 700억 고용 200명) 등의 세부 사업도 확정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강열 광주시환경공단 이사장 임명

광주시가 산하기관인 광주시환경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강열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사는 그간 제시했던 공공기관장 자격요건을 기본에 두고, 광주시의회 인사청문 결과와 시민단체 및 언론 등 지역사회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김 후보자에 대

한 지역 내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시의회 인사특위는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인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리더십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며 "다만, 시민단체 제직 당시 수행한 금전 등 도덕성 문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